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해, '민생·혁신·실용' 3대 원칙 견지

김관영 도지사, 2023년 도정운영 방향 발표

▶▶ 관련기사 3면

전북도는 2023년 새해 '민생·혁신·실용'의 3대 원칙을 견지하며, 전북경제를 살리고 일으켜 세워 전북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도는 또 기업유치 및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 등 성장동력을 확보해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김관영 도지사는 5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구상을 담은 '2023년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난해 성과와 관련해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사업센터 유치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예타 통과,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달성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그동안 우리가 거둔 성과는 도민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전북의 도약과 상승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민생 8기의 새로운 도정은 다양한 성공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으며 도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성원하고 지원해주신 결과"라며 도민에게 존경과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다만 "지나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성장률 저하,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위기를 기회

미래산업 생태계 대전환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

새로운 전북 초석 다질

5대 목표·10대 시책 추진

로 전환해 내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23년은 민생기 공약과 핵심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새만금궤도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등 전북에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지사는 "획기적인 투자환경개선과 과감한 규제타파 등 새로운 전북을 위해 함께 혁신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며 "지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새로운 전북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정은 올해 '새로운 전북'의 초석을 다질 도정 5대 목표와 이를 위한 10대 역점시책을 선정하고 올해 속속 추진하는 정책 추진으로 성과 창출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10대 역점시책으로 △미래 성장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전북경제 르네상스 도약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 산업 연계



김관영 도지사가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3 전북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3년 도정 운영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새만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명품도시 실현 △자율과 상생으로 고도의 자치권 강화 △합계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로 따뜻하고 행복한 전북 실현 △지속 이용·발전 가능한 회복·탄력의 생태환경 조성 △365일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 △교육·소통·협력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제시했다.

미래성장 주도기업 전략적 유치로 산업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고, 1기업·1공무원 전담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전북경제 활력을 높인다.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주력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신성장산업 육·소통·협력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제시했다.

스마트팜 확대와 환경친화 저탄소 농업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고, 新지역 성장 및

을 마련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 품목별 유통 조직을 육성하여 농생명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간다. 또한,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게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투자하고 살고, 살고 싶은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명품 수변도시 등 조속하게 기반을 조성하고, 新지역 성장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간다. 또한,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게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투자하고 살고, 살고 싶은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명품 수변도시 등 조속하게 기반을 조성하고, 新지역 성장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연계 교통망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간다.

특별대우로 전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로 새로운 전북으로 거듭난다. 시군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도와 시군의 동반성장을 이뤄내고, 청년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고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전북형 지역맞춤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어디서나 든든한 세대별·계층별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간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감과 협력으로 지구온도를 낮추는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해 나가고, 회복과 탄력을 주는 힐링·생태 공간 조성으로 생태·신림지원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높인다.

민관 협력으로 재난안전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위험 요소 발굴 등 사회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지자체·교육청·대학과의 교육협력 실현을 통해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대외적 소통·협치를 강화한다.

전북도는 10대 도정 역점시책에 역량을 집중해 정책의 성과가 도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도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과 함께 전진·도약·옹비하는 한해가 되기 위해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올해 사자상어 '도전경성(挑戰驚城)'의 자세로 자신감을 갖고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 '데이터안심구역 1호' 지정

전북도-국민연금공단 협업, 디지털 금융 선도 앞장

양·질적 데이터 활용 기반 제공, 혁신성장 가속화

이 확보된 공간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공간으로,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역이다.

전북도는 시설·공간, 조직구성, 장

비·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운영·이용 정책 및 절차 마련 등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6개 분야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 데이터안심구역 자문단의 서류심사·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을

받았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금융 데이터 관련 전문가 자문, 보안 및 법률전문가 자문, 유관기관과 실무협의 등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파기부의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현재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는 전북 테크비즈센터 6층에 위치하고 있

며, 국민연금공단의 내부데이터를 비롯해 금융 데이터, 공공기관 개방 데이터 등 117종 35억 건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센터 이용자 대상 데이터 수요조사, 금융 데이터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상당한 수준의 양적·질적 데이터 활용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데이터 분석 교육 및 금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금융 빅데이터 스타트업 활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병행해 전북도 디지털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을 통해 양질의 미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됐다"면서 "데이터안심구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경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혁신금융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